

가평지회

새롭게 출발하는 가평지회 현판식



가평 지회(지회장 김종석)는 지난 6월 1일 가평군 청평면 소재 사무실에서 박기준 중앙회장 김상옥 중앙회 감사와 청평면 관계자 그리고 회원 등이 참석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가평지회를 축하 하였다.

김종석 가평지회장은 북한강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기회와 가능성이 넘쳐나는 희망의 고장이며 호명호수공원과 연인산 도립공원 그리고 북한강과 자리 잡은 자라섬 등은 경춘선 복 전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뿐 아니라 여러분의

관광과 체험휴식의 공간이 되고 있는 가평군이라면서 출발은 늦었지만 전국의 여러 회원들이 협조해주고 독려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달라고 부탁 하였다.

박기준 중앙회장은 가평군은 자연환경과 조화된 수도권제일의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풍요롭고 건강한 Ecopia 가평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회임원과 회원사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소임을 다하고 회원들의 상부상조하는 가평지회가 되어달라고 하였다.

중앙회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실시



▲ 문쾌출 부회장 (난방시공업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강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난방 시 공 업
기 술 인
력 의 법 정 교 육 을
실 시 하 였 다. 이 는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제 65 조, 열 사
용 기 자 재 관 리 규 칙
제 50 조 에 근 거 를
두 고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제 10 조 에 따 라
난 방 시 공 업 기 술 인

력으 로 선 임 된 자 는 이 교 육 을 이 수 해 야
한 다.

이 는 정 부 의 에 너 지 정 책 과 관 련 하 여 난 방
시 공 업 분 야 에 서 정 격 시 공 을 통 한 에 너 지

절 약 과 안 전 기 술, 신 기 술 등 의 교 육 을 실
시 하 였 다.

2009 년 도 에 는 6 월 27 일 서 울 시 강 서 구 폴
리 텍 대 학 강 서 캠퍼 스 에 서 교 육 생 300 여 명
이 이 수 하 였 다.

문 쾌 출 부 회 장 은 인 사 말 에 서 이 교 육 은
에 너 지 관 리 의 효 율 적 인 수 행 과 안 전 관 리
를 주 된 목 적 으 로 하 고 있 다 면 서 시 공 업
의 대 외 경 쟁 력 을 높 이 기 위 해 신 기 술 신
공 법 을 추 가 하 였 고 난 방 시 공 의 단 일 업
종 만 으 로 는 사 업 을 더 이 상 지 속 하 기 어
려 운 한 계 를 극 복 하 기 위 해 사 업 영 역 을
넓 혀 나 가 는 데 다 소 라 도 도 움 이 되 었 으 면
한 다 고 하 였 다.

2009년 수해대비 긴급복구협의회



09년도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 지역 발생시 가스사고를 미연에 예방, 수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2008년도 수해대비 가스시설 긴급복구지원 협의회”를 지난 6월23일 가스안전공사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우리협회 등 10개의 관련단체에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금년 기상전망에서 강수량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대기불안정 및 발달한 저기압으로 국지성 폭우가 예상되고, 지구온난화로 평년보다 많은 13개정도가 예상되며 우리나라에는 2~3개정도의 직접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작년에는 크게 2차례의 수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방지와 지역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관리현장 지도, 점검 실시 그리고 수해 피해지역 긴급복구지원 내용 등을 발표하였다. 올해도 수해대비 복구계획으로는 수해발생시 침수된 가스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기관별 안전점검 및 비상연락망을 강화하고 각 유관기관 및 업계의 역할분담 및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리협회에서는 예방단계로 장마 시에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지부(회)의 회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회원이 설치한 전체보일러를 지역별로 할당하여 우선점검 한다. 특히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된 보일러를 집중 점검하도록 한다. 배기통의 노후 및 이탈로 이산화탄소와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를 많은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또 각 지부(회)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내의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보일러를 방치하기 쉬운 어려운 가정은 자체봉사대를 가동하여 관할구청, 동사무소 및 복지관 등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얻어 점검 및 보수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수해발생지역이 발생할 때에는 1단계로는 수해지역의 관할지부(회)의 대민봉사대를 구성하여 20명 이상의 인력과 복구장비를 지참하고 침수 보일러 및 가스기기 점검 수리와 파손가옥 및 난방시설보수를 한다. 2단계로는 수해지역 및 피해규모에 따라 인근지부(회)의 대민봉사대 파견하여 지원을 하고 50명 이상의 인력과 각종 복구장비 및 차량 지원을 통해 침수보일러, 가스기기 점검수리, 파손가옥 온돌 판넬 등을 긴급점검 수리 교체한다. 3단계로는 집중호우 또는 태풍 등으로 피해지역이 광범위한 경우 중앙회차원의 대민봉사대를 구성하여 500명 규모로 10개조 편성(각50명)을 하여 순차적으로 파견하여 침수보일러, 가스기기, 난방시설, 유실도로, 대민봉사, 파손선박 등을 복구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수재의연금 및 복구지원금을 모금하여 당장 입주 불가능한 가옥에 장비 및 부품 등을 구입하여 설치를 해주고 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릉시(시장 최명희)

협회 강릉시 방문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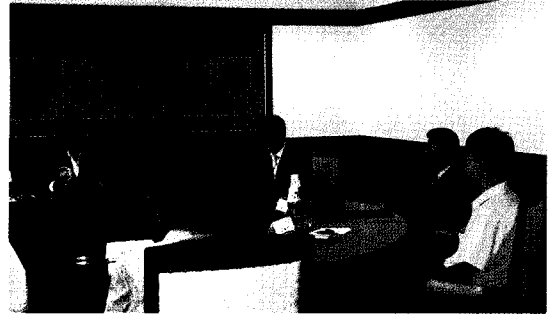
▲ 강릉시장 최명희

협회에서는 강릉시(시장 최명희)를 방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회가 성황리에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준 강릉시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강릉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 하였다.

최명희 시장은 단오제를 맞이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하여준 전국보일러설비협회회원 및 가족 여러분에 감사드리면서 일반사회단체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회를 원만히 성료 되었다면서 강릉시는 환 동해 중심도시 제일 강릉건설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히고 세계인

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난 강릉단오제를 비롯해, 오죽헌, 선교장, 객사문 등 수많은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한 역사문화의 도시이고,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국제 관광의 도시 강릉을 잊지 말고 보다 많은 관광을 부탁드립니다 고 하였다.

박회장은 에너지절약과 가스사고 예방에 대한 우리들의 실천의지를 가다듬고 우리



강릉자원봉사센터

보일러기증 및 단합대회협조에 감사방문



전국 보일러 설비협회(회장 박기준)는 6월11일 강릉시 옥천동소재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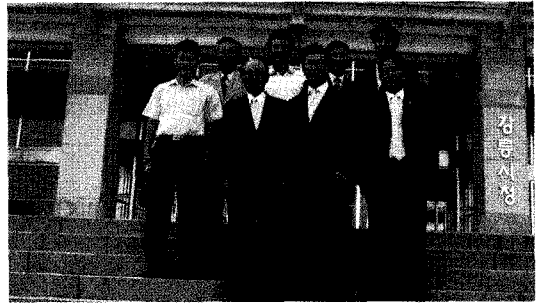
정)에서 중앙회(박기준 회장, 김상옥 감사)와 강원도지부(최홍섭 지부장, 조진행 부지부장, 김용기 사무국장)과 강릉시청 관계자 여러분, 김선정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열린 전국보일러 설비협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강릉시민과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보일러 3대(250만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달라고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선정)에 기증했다.

박기준 회장은 에너지절약 및 재해예방 실천결의 다짐을 하고 우리협회 회원과

들의 단합된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해준 단합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협회의 단합대회가 강릉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강릉시민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하였다.

또한, 강릉시장은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관내 저소득층에 보일러 무상수리 및 교체 공사를 실시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으로 환 동해 중심도시 (제일

강릉) 도시 건설에 공이 큰 이승목(영애설비), 이만히(가인설비), 고미덕(남부설비) 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뛰고 달리며 힘들고 지친 심신을 가다듬고 회원 간에 화합과 결속을 새롭게 다지는 데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준 강릉시장을 비롯하여 강릉시관계자여러분과 자원봉사센터에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김선정 소장은 노전대통령의 서거로 강릉시가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 단체로는 아주 질서 있는 대회였다면서 협회가 1박2일 동안 머물면서 강릉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었다면서 전국각지에서 참석하여주신 회원가족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최홍섭 도지부장은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더 보람있고

희망을 주는 활동들을 함께 협조하여 나가자고 하였다.

조진행 부지부장은 노 전대통령 서거로 대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여 죄송하고, 또 먼 길을 잘 찾아주셔서 회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세협기계(주) 백석노 대표이사

고유가 시대, 세계적으로 히트펌프가 대세!



▲ 세협기계(주) 백석노 대표이사

고유가 시대, 세계적으로 히트펌프가 히트를 치고 있다. 실내기에서 냉기가 나오고 실외기에서 열기가 나오는 에어컨의 냉방사이클과 핵심 장치의 역할을 반대로 역전시켜 실내에서 열기가 실외기에 냉기가 나오게 하는 기계, 이 기계를 히트펌프라 한다.

히트펌프는 석유를 이용하는 냉, 난방 장치에 비해 80%이상, 전기히터를 사용하는 제품에 비해서는 50%이상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치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럽, 아시아 등 선진국에서는 이 히트펌프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에 급속도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석유를 쓰지 말고 전기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슬로건으로 전화(電化) 라는 말을 쓴다.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냉난방은 물론 가정용 온수기까지 이 히트펌프를 이용한 장치를 보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대형건물이나 각종 사우나, 모

텔, 펜션등 상업용을 중심으로 이 히트펌프가 보급되고 있다. 히트펌프에는 “공기열(AIR TO WATER)” “수열(WATER TO WATER), 지열, 해수열 등 많은 분야가 있다. 이중 설비 비용이 저렴하고 세계적으로 보급률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공기열이 가장 각광 받고 있다. 지난 20년간 이 제품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온 회사가 있다. 바로 세협기계(대표이사 백

석노)주식회사이다. 세협은 우리나라에 냉동공조분야에서만 잔뼈가 굵은 회사다.

그 결과 자체기술로 개발한 ADZ SYSTEM으로 시장에 공기열 히트펌프를 공급하고 있다.

세협이 개발한 ADZ SYSTEM은 히트펌프의 계절별 변화에 자동으로 시스템이 인지하여 계절에 맞게끔 냉동 사이클이 변화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및 최적의 사이클로 운전하게 되어 있다. 동절기에는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8단계 사이클로 운전되며, 하절기에는 4단계로 운전이 된다. 이미 국내에 1,500기 이상 설비되어 운영되고 있어 그 안정성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세협은 히트펌프 전문회사이다. 세협이 생산하는 제품은 흔히 말하는 히트펌프냉난방기(AIR TO AIR)와 히트펌프냉온수기(AIR TO WATER)이다. 이미 2004년 히트펌프 냉난방기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라인을 갖추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6.8사이클 히트펌프를 개발해 생산에 나선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06년부터 히트펌프냉온수기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생

산에 나서 국내 및 국외에 보급하였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ADZ SYSTEM은 앞서 개발된 6.8사이클 시스템을 적절히 사용해 초절전 히트펌프인 동시에 절감형 히트펌프냉온수기이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에 ODM형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최근 신세계I&C와 에너지 솔루션(ESS)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에너지사업에 대기업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최근 세협은 국내 대기업에 납품과 동시에 자체 수출의 길을 열고 있다.

전년도 일본에 SAMPLE형식으로 히트펌프 냉온수기가 선적되었으며, 현재는 중동지역의 여러국가들과 마케팅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백석노대표이사는 “이미 전세계를 대상으로 마케팅 준비가 돼 있다며, 우선 미주와 아시아, 유럽 세권역으로 나눠 이미 시장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이중에서도 유럽권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석노 대표이사는 전세계에 보급된 7200만대의 히트펌프 중 절반에 가까운 3200만대가 중국과 일본 등에 집중돼 있어, 앞으로 유럽권과 미주권이 급속도로 히트펌프의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이에 맞추어 유럽권에 맞는 적절한 기술을 이미 기술제휴를 통해 확보하였고, 이미 제품개발 착수가 들어가 완성품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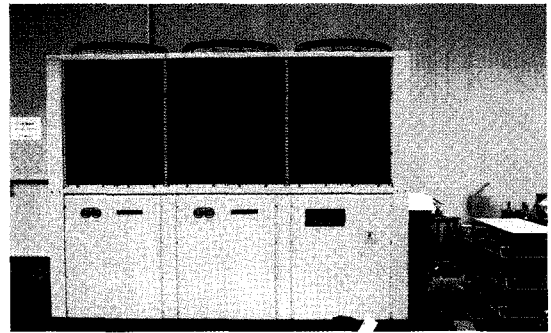
또한 중동의 여러국가와도 제품공급에 대해 진행 중이며, 최근 아시아권에도 제품공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발전된 히트펌프 기술과 KHOW를 세계로 수출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백대표는 다짐한다.

세협은 국내 소비자 중심의 제품개발에도 주가를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 많은 수많은 영세한 업체들이 히트펌프냉온수기를 공급하여 왔다. 국내에는 많은 업체들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판매만 하고 사라지는 업체들이 부

지 기수 였다. 세협은 이 점에 주안을 두어 국내에서 가장 신속한 A/S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전국의 29개 서비스망으로 연결된 서비스 요원이 24시간 대기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히트펌프 냉온수기를 보급한지 3년이 지났다. 이 회사는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국내에서는 가장 긴 무상서비스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그 만큼 제품에 자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세협기계주식회사는 “절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대신 “절감”이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절약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아껴쓰는 것이다. 하지만 세협은 아껴쓰는 것이 아니라 쓰면 아껴지도록 만드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세협은 히트펌프 전문업체로 성장할 것이다.



▲ 09.5.29일 세협기계(주) 에너지 절감 솔루션 MOU 체결식